

신한투자증권, 올해 국내 주식거래 데이터 분석

개인투자자 10명 중 7명 수익… 최다 구간 ‘100만원 이하’

장세 롤러코스터… 성과 양극화
삼성전자, 5~9만원대 희비 엇갈려
평균수익 912만원·손실 685만원

#3년 전 핀테크업에 입사한 김모 씨(32)는 취업문만 통과하면 탄탄대로가 열릴 줄 알았다. 하지만 달라진 건 대학 앞 자취방을 벗어나 오피스텔로 이사한 것뿐. 그마저도 전세대출 9000만 원을 받았다. 입사 무렵 점찍어둔 아파트는 6억 원에서 13억5000만 원으로 치솟은 반면 김 씨의 연봉은 700만 원 올랐다. 올해 초엔 마이너스통장으로 3000만 원을 대출받아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지만 현재 수익률은 -5%다. 김 씨는 “3년 전으로 시계를 돌린다면 취업에 목숨 거는 대신 골드바를 샀을 것”이라고 했다. #자신을 ‘아수의 심장’을 가진 공격형 투자자라고 소개한 한모 씨(28). 그는 국내 증시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동학개미’다. 한 씨는 올해 2월경 마이너스통장 1억 원, 신용대출 3300만 원에 그간 모아놓은 돈 1억 3000만 원을 보태 12.3계엄사태로 불안한 틈을 타 시장에 뛰어들었다. 3월 코스피 2600선이 무너지자 주식을 본격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했다. 주가가 더 떨어지면 더 샀다.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현재 수익률이 10%를 웃돈다.



Chat Gpt에 의해 생성된 주식투자 양극화 이미지.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민하던 개미(개인투자자)에게 올해 증시는 다시 없을 ‘기회’가 찾아온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코스피 ‘사천피’ (코스피 지수 4000) 시대에 자산 양극화는 컸다. 올해 10명 중 3명은 주식 거래로 손실을 봤다. 수익을 낸 나머지 사람의 절반이 손에 쥔 돈은 ‘100만원’에 불과했다.

18일 신한투자증권이 올해(1~11월) 국내 주식 거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주식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33.0%는 주식거래로 손실을 봤다. 평균 손실액은 685만원이었다.

반면 67.0%는 수익을 기록했지만, 절반(54.4%) 이상은 수익이 ‘100만원 이하’였다. 평균 수익액은 912만원으로 집계됐다.

손실액 구간은 ‘100만원 이하’ 57.1%,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0.1%, ‘1000만원 초과’ 12.9% 순으로 집계됐다.

수익 투자자 중에서는 수익액 ‘100만원 이하’ 비중이 가장 많았고 ‘100만원 초과~1000만원 이하’ 32.3%, ‘1000만원 초과’가 13.3%였다.

종목별로는 삼성전자가 개인 투자자의 희비가 가장 엇갈린 종목이었다.

삼성전자를 매도한 투자자 가운데 81.4%는 평균 250만 원의 수익을 기록한 반면, 18.6%는 평균 100만원의 손실을 봤다. 수익을 실현한 고객의 매도 단가는 ‘7만~8만원대’가 35.0%로 최다였고, ‘5만~6만원대’ 34.2%, ‘9만원 이상’ 30.9%가 뒤를 이었다. 주가가 11만원 이상으로 상승했던 시점에 매도한 비율은 0.5%에 그쳤다. 손실을 본 고객의 매수 단가는 ‘5만~6만원대’가 53.3%로 과반을 차지했고, ‘7만~8만원대’ 32.3%, ‘9만원 이상’ 14.4%였다.

시장별로 보면 코스피 종목을 매도한 개인 투자자의 71%가 수익을 실현한 반면, 코스닥 종목 매도 고객은 수익 53%, 손실 47%로 수익과 손실 비중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자산 격차를 줄이기 위한 추격전에서 성공하는 이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동학개미 세대가 ‘투자분투(奮鬪)’ 세대가 된 것은 축적된 자산 규모가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공지능(AI)시대를 맞아 일지러는 불안해지고 소득은 주는데 자산 가격은 다락같이(물건 값이 매우 비싸게) 오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

2개사 우수, 19개사 보통, 8개사 미흡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에서 대다수 금융회사가 ‘보통’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5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평가는 전체 77개 금융회사 중 2그룹에 해당하는 2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상은 은행 6곳, 생명보험 5곳, 손해보험 2곳, 증권 5곳, 여신전문금융회사 8곳, 저축은행 3곳이다. 평가는 지난 5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9영업일 동안 이뤄졌다.

평가 결과 라이나생명과 현대카드만이 ‘양호’ 등급을 받았다. 나머지 27개사 가운데 19개사는 ‘보통’, 8개사는 ‘미흡’으로 분류됐다. 금감원은 대다수 금융회사가 기본적인 소비자보호 체계는 마련했지만,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내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증권사 가운데서는 신한투자증권만 ‘보통’ 평가를 받았다. 대신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NH투자증권 등은 환매 중단 사모펀드 불안전판매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기관 제재를 받은 점이 반영돼 ‘미흡’ 등급으로 하향됐다.

/허정윤 기자

금감원, 보이스피싱·스미싱 소비자경보 등급 상향

쿠팡 유출사고 악용… 주의→경고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 권고

금융당국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실제로 확인됨에 따라 소비자경보를 ‘주의’에서 ‘경고’ 단계로 상향했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빙자한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가 최근 발생하고 관련 제보도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경보 등급을 한 단계 상향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12월 1일 2차 피해 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를 언급하며 금융소비



금융감독원 전경.

자의 불안 심리를 악용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검찰·경찰·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기관을 사칭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대포통장 개설이나 자금세탁 범죄에 연루됐다’고 겁을 주거나, ‘피해 보상 절차가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방

식이다.

이 과정에서 사기범들은 ‘법원 등기 반송’, ‘사건 조회’, ‘피해 여부 확인’ 등을 명목으로 특정 인터넷 주소 접속을 유도한다. 해당 사이트는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공식 홈페이지와 거의 동일하게 꾸며진 피싱사이트로, 접속 후 개인정보 입력이나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 악성 앱이 설치되면 휴대전화 사기범에게 장악돼 전화번호 조작, 개인정보 탈취, 실시간 위치 확인 등이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자금 이체를 유도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스미싱 피해도 늘고 있다. 정부기관이나 전자결제대행사 직원을 사칭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쿠팡에서 유출된 것으

로 보이는 이름·연락처·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신뢰를 높인다. 이어 수백만원대의 ‘피해보상금’을 제시하고 문자 내 링크(URL) 클릭이나 텔레그램 대화를 유도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법원, 검·경찰, 우체국 등이 사건 확인이나 등기반송을 이유로 특정 사이트 접속이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안심차단 서비스 3종 세트’ 가입을 적극 권고했다. 해당 서비스에 가입하면 신용대출·카드론 등 여신거래, 비대면 계좌개설, 오픈뱅킹 서비스가 차단돼 금융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하나증권, 발행어음 사업 전담 조직 신설

내년 1월 발행어음 상품 출시 목표

하나증권이 발행어음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자금 운용·리스크 관리 역량 강화에 나선다. 발행어음 인가를 계기로 조직과 시스템을 정비해 모험자본 투자와 기업금융을 본격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하나증권은 지난 17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사업에 대한 최종 인가를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인가 이후 대표이사 직속으로 발행어음 전담 조직을 신설해 기획, 조달, 운용, 사후관리 전반을 총괄하



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모험자본 투자 심사 프로세스를 새롭게 구축해 보다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심사 체계를 마련하고, 자금 운용과 리스크 관리 역량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첫 번째 발행어음 상품 출시는 내년 1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발행어음은 전국 WM(자산관리) 채널을 통해 판매되며, 조달된 운용자산의 60% 이상을 인수금융, 기업대출, 기업금융 등 IB 핵심

영역에 투자해 WM과 IB 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계획이다.

하나증권은 발행어음 운용 자산의 25% 이상을 모험자본에 투자해 미래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지원한다는 전략도 내놴다. 이를 위해 모험자본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심사 및 사후 관리 역량을 고도화해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윈-윈 전략을 추진한다.

모험자본 투자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국민성장펀드, 민간공동기금펀드 등과의 간접투자도 병행해 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벤처캐피탈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으며, 학계와 비영리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해 유망 기업 발굴에도 나선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최근 생산적·포용금융에 100조원을 투입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발표한다 바 있다. 하나증권은 이번 발행어음 사업 진출을 통해 그룹 차원의 프로젝트에서 기업금융과 모험자본 투자 부문을 담당하며 역할을 확대할 계획이다.

강성목 하나증권 대표이사(사진)는 “발행어음 사업을 통해 모험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혁신기업의 성장과 미래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할 것”이라며 “이번 인가를 계기로 하나금융그룹이 전사적으로 추진하는 ‘하나 모두 성장 프로젝트’의 모험자본 공급 부문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한국거래소, 31일 휴장

2026년 1월 2일 10시 개장

올해 마지막 날인 이달 31일 국내 주식시장이 휴장한다.

한국거래소는 오는 31일을 연말 휴장일로 지정해 증권·파생상품시장을 30일까지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연말 휴장일인 31일은 결제일에서 제외된다. 결산배당 기준일이 12월 말인 상장법인의 배당락일은 29일이다. 26일까지 해당 주식을 매수하면 결산배당 기준일을 12월 말로 정한 상장법인의 배당을 수령받을 수 있다.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30일 오후 6시에 게시하는 야간거래는 정상 실시하고, 31일 오후 6시에 게시하는 야간거래는 휴장한다. 다만 장외파생상품 중 양청산(CCP)과 거래정보저장소(TR) 보고 업무는 연말 휴장일 없이 정상 운영된다.

2026년, 새해 첫 개장일은 1월 2일이다. 이날은 증시 개장식이 개최됨에 따라 매매거래 시간이 임시로 조정된다.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의 정규시장은 오전 10시에 개장하며, 거래 종료 시각은 현행과 동일하게 오후 3시 30분이다. 장 개시 전 시간외 시장 역시 거래 시간이 1시간 순연된다.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NXT)도 한국거래소의 연말·연초 일정 조정에 따른다.

/신하은기자 godhe@